열매 맺는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편지

주후 2023년 11월 27일 제601호

**소그룹 사역,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?**

요즘 교회에서는 소그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“과연 소그룹이 교회에 실제로 유익함을 주는가?”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. 소그룹 사역은 분명히 유익하지만, 그 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. 미국 미시간주에 소재한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를 섬기는 윌리엄 보에케스타인 목사는 ‘소그룹 사역의 유익함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제시합니다.

**1. 제자도(제자 의식)**

소그룹은 구성원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(딛 2:1~8). 강단에서 듣는 설교도 좋지만, 우리는 그 설교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.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더욱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줄 동료들이 필요합니다(행 18:24~26).

**2. 호기심**

소그룹 지도자들이 개방성과 신뢰의 환경을 조성할 때 소그룹 구성원들은 다른 곳에서는 묻지 않을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권장됩니다. 구성원들이 강단에서나 특정 자리에서 언급된 목회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, 질문을 통해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

**3. 책임**

모든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을 더욱 온전히 해내도록 격려하고 부드럽게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(마 18:15~20, 갈 6:1~2). 서로 “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”(유 1:3)라고 권면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평소 신행일치의 삶을 살며,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.

**4. 환대**

많은 성도는 성경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명령(히 13:2, 롬 12:13)을 따르고 싶어하지만,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부터가 두렵기도 하지만, 음식을 나누거나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환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*5. 기도**

신약의 성도들은 “한마음으로” 기도를 드렸습니다(행 4:24). 성도들은 보통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의 안부를 위해 기도합니다. 하지만 소그룹에서는 서로의 부모와 자녀, 이웃과 친구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기도를 나눕니다. 더구나 소그룹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울 기회가 생깁니다.

**6. 친교**

친교는 영적으로 중립적인 활동이 아닙니다. 소그룹의 친교는 더 깊은 영적 우정을 촉진해 주고, 구성원 사이에 영적 책임을 더욱 장려해줍니다.

※ 이 글은 『10 Benefits of Church Small Groups』(William Boekestein, Core Christianity; 2018년 3월 19일)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

Called to Awaken the Laity

Disciple-making Ministries Int’l

06721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8길 98

전화 : 02) 3489-4200

팩스 : 02) 3489-4209

E-mail : cal@sarang.org

www.discipleN.com, www.sarangM.com